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Tel. 054-805-3981

Fax. 054-805-3989 www.gbe.or.kr

자명종

- 교육활동 및 회의활동 2~4면
- 건강 기획연재 7면

- 행사 및 현장활동 5면
- 조합원 사랑방 8면

- 지부 소식 6면



2016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김종기)은 2016. 7.

26.(화)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 신청사 화백관에서 이영우 교육감과 23개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된 각 직렬별 조합원 23명이 함께 소통의장을 마련하였다.

행사에 앞서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육행정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선 학교현장의 교원들과도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조합원과 교육감님과의 직접 대화 시간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합

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합원들과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는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노조간의 단체 협약 사항으로 올해로 3회째 개최되었다.

김종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화시간은 평소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조합원들이 형식과 격식에 구애 없이 허심탄회하게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과 교육감에 대한 교육철학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소통 하였다. 견의된 내용은 담당과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행정과장과 정대림 담당사무관과 담당직원, 정원상 사무총장이 배석하였다.

2016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결과

일시: 2016. 7.26.(화) 10:30
 장소: 행정지원동 화백관
 대화자: 6급이하 지방공무원 지역별 대표 23명

대화안건	답변내용	소관부서
○ 인사 말씀	○ 교원들도 지방공무원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 통·폐합으로 인한 거점학교 근무 시 인센티브 지급방안	○ 인사,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은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음	총무과
○ 일반직공무원 대상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2017년도 연수과정 반영여부 검토 - 교원대상 꿈과 끼를 키우는 1인1기 연수 -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중국·일본 등 해외연수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450-4397)
○ 상주도서관 사서직 정·현원 배치 및 타 도서관과의 형평성 있는 정원 조정	○ 현황을 점검해서 2017.1.1.자 인사 시 확인하겠음	총무과 행정과
○ 신규채용 시설관리직원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 필요	○ 시설관리직원 업무 적응은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연수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강사 선정 현직 시설관리직원 고려할 것)	총무과
○ 학교정보화 전담조직 구성	○ 업무협의를 통해 방안 강구	재무정보과
○ 학교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수당 신설 및 연수기회 확대	○ 2017년 연수계획 수립 시 경북교육연수원과 연수과정 협의바람(예산확보) ○ 수당신설은 불가함	기획조정관
○ 학교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검출에 따른 후속대책 방안	○ 예비비 예산 투입으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음	체육건강과
○ 성과상여금 일시불 지급 및 등급간 격차 해소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시 일시불 지급에 관해 협의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음 ○ 등급간 차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고민하겠음	총무과
○ 소수직렬(보건직) 장기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신규채용 검토	○ 출산 및 육아휴직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음	총무과
○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여건 개선	○ 대체인력 채용문제, 인건비 현실화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점검하도록 하겠음	총무과
○ 인사발표시기 및 정기인사 전보 조정	○ 인사발표 시기(7일전→10일전)은 검토하도록 하겠음 ○ 가급적 인사는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총무과
○ 경북교육연구원 세움연구회 중·장기 지원 건의	○ 경북교육연구원 운영비 예산수립시 검토하기 바람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840-2108)
○ 독도교육 홍보를 위한 울릉교육지원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요청	○ 2017년도 울릉교육지원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가지원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겠음	기획조정관



2016 하반기 조합원교육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노동교육
성황리에 종료

경북교육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8. 5.(금) 안동권역을 시작으로 경북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 2016년도 하반기 노동교육을 8.12. (금) 경주권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은 경북교육노조가 2013년 단체협약의 결과로 4회째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4개권역(안동권, 경산권, 구미권, 경주권)에서 휴가철과 폭염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다.

교육에 앞서 격려자 참석한 김동구 행정지원국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노조가 2015년 행자부 주관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하면서 직원 복지와 권익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제 노동교육이 노사가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체조합원 대상 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노조 중 경북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록 1년에 두 번 동학절기 방학 중 짧은 시간에 개최하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조의 역할과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노동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적극 참석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번 노동교육에서는 행복충전발전소 이상국 소장의 웃음에 대한 유머 강의와 김종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발전과정과 경북교육노조의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016 노사관계교육 현장맞춤과정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2016. 8. 17.(수)~19.(금) 3일간 경주 더 케이 호텔에서 지부 신임 당선자(지부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위해 생활했다면,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노조 임원의 자세”라며 “자신의 권익보다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임원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교육생들은 3일간의 교육일정동안 △공무원노사관계 이슈 및 발전방안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노사파트너십 구축 분임토의 △공무원노사관계 쟁점사례연구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의 역할에 대한 강의 △노사파트너십 현장체험과 정보교류 및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가 되었으며, 임원간의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제64차 정기상임위원회

경북교육노조는 7월 2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64차 정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규 임용된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경북 교육노조에서 교육청 집행부에 발전적인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 후속조치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시설관리직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번 정기상임위원회는 전체 30명 중 27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청노조 제34차 대표자회의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과 함께 6월 24일 제34차 가맹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대표자 회의 전 이영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노조의 최대 단위노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4월 전차 회의 이후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2016년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교육부문 추진 건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등 총연맹 공통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실 부당업무 원상복귀, 수당지급, 보건법 시행령 개악저지 등 교육청노조 차원의 현안문제에 대해 연맹과 총연맹의 역

할을 확고히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교육청노조는 전국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실천하는 노조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재형 교육청노조연맹위원장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김인석 교육청노조연맹사무총장, 편경천 부산교육노조위원장, 김윤조 대구교육노조위원장, 이창주 대전교육노조위원장, 박현자 인천교육노조위원장, 이정현 울산교육노조위원장, 안명호 경기교육노조위원장, 김광소 충북교육노조위원장, 김성희 경남교육노조위원장, 김완근 제주교육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6년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이영우 교육감, 본청 국과장,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경북교육노조 임원을 포함한 노사간부 70여명이 참석하는 노사 합동 워크숍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되었으며, 노사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와 공무원 조직에도 '유머로 소통하고 협력으로 상생하자'라

는 주제의 웃음 특강도 실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노사 간 발전적 소통 문화 정착과 상호협력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에 함께할 것을 희망하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기울일 것"을 약속했고, 이영우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 조직에도 유머로 소통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형성과 노사의 하나된 힘으로 명품! 경북 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유공자 표창 수여

경북교육노조는 2016년 7월 21일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권귀향, 신철언, 이대원, 김수환, 박영락, 김철, 천우태, 이경호, 김형한, 김정목 10명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가 있었다.

이번 노사 관계 유공자 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였다.

신규 시설관리직과 위원장 간담회

경북교육노조는 2016년 8월 16일 경북 교육노조 회의실에서 신규 시설관리직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김종기 위원장은 "무더위에 업무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재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음 좋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참석한 신규 시설관리직 12명 모두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신규 시설관리직에서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으로 90% 이상 가입하였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설관리직이라 는 명칭이 사용하게 된 배경, 공무원직종 개편 등에 관한 설과 함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청취한 후 많은 사항이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경북교육노조에서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부 소식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천지부는 2016년 8월 15일 율곡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차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관리직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 앞서 김정래 지부장은 “2016년 2차 시설관리직 현장 직무연수를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조합원간의 업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로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에 김천교육지원청 문상기 행정지원과장은 “신규 공무원과 신설학교가 많은 점을 인식하여 시설관리직 연수

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 관공서와 협력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현장 직무연수는 ‘2016년 김천지부 노사 협의회’를 통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 내용으로 1차에는 신규공무원 맞춤형 수목 및 화초관리, 2차는 신설학교 자동화시스템 교육, 다양한 현장 시설관리 교육 등 이었다.

현장 직무연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회원들간의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천지부 시설관리직 현장 직무연수 실시



안동지부신규공무원간담회



포항지부장취임식



시설관리직 신규자 간담회(경산)



시설관리직 신규자 간담회(포항)



시설관리직 신규자 간담회(경주)

건강 기획연재 ⑤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석문호흡 石門呼吸 이란?

석문호흡은 체계적이다. 단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이 있고, 거기에 정확히 부합되는 수련법과 점검자에 의해서 매달 이루어지는 확실한 일대일 수련점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계입문 이후의 수련단계까지를 직접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석문호흡 수련자들이 각 단계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석문호흡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석문호흡은 철저한 체험수련이다. 또한 스스로 체득해 얻어야만 하는 공부이다. 석문호흡은 먼저 단전을 정확한 위치인 석문에 자리

잡도록 하고, 형성된 단전에 기운을 채워 (축기), 대맥과 소주천을 운기하고, 온양으로 진기의 소생처를 만든 이후에 비로소 대주천을 운기해서 법수련 4단계를 거치며 천지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12경락과 기경팔맥을 운기 유통시키는 전신주천, 채약, 그리고 기화신을 수련하면서 전신을 빛으로 채우고 양신의 이루어 도계 (道界)에 입문하여 신인합일을 이루는 순서로 수련이 진행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공(동작) 따라 하기
"하루 10분으로 스트레스를 확~날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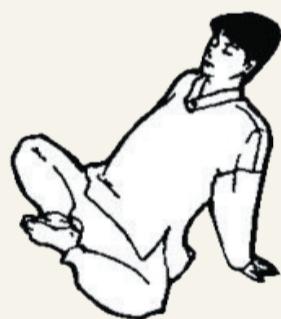


그림1



그림2

효과

성기질환, 정력에 좋으며, 무릎을 강하게 하고 간기능을 강화 시킨다.

방법(그림1)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모은 발뒤꿈치를 회음(會陰)까지 당긴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넓이로 하여 뒤로 뻗어 준다. 이때 턱을 당겨 주고 아랫배는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야 하며 시선은 단전을 바라본다.

효과

심신의 중심을 잡아주며, 척추를 강화시켜 체형을 바로 잡아 준다.

방법(그림2) 양쪽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발뒤꿈치를 회음혈(會陰穴)까지 당겨 준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주먹을 좌우 대맥혈(옆구리 부분)에 댄다. 허리를 펴는 게 우선이다.

Health Story

"석문족탕법"

방법

- 국산 생강 반 근(200g)을 저며서 세수 대야 2개정도의 분량의 물을 넣고 1시간 가량 달인다.
- 달인 생강 물을 약간 뜨거울 정도로 식힌다.
- 굵은 소금 150g을 세수 대야 바닥에 균일하게 깐다.
- 식힌 생강 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세수 대야에 붓는다.
- 30분~1시간(중환자는 1시간) 가량 발과 손을 담그고 있다.
- 한 번 끓인 물에 하루 한 번씩 두 번 내지 세 번만 담그면 다시 물을 바꾸어야 한다.

효능

생강은 특유의 향취와 약효로 경락을 따뜻하게 하며, 막힌 곳을 순환시키는 소통 작용이 있다.

또한 나쁜 것을 제거하며, 저항력을 키워주고 풍을 제거한다. 천일염은 제독작용이 있어서, 손발을 담그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시킴은 물론, 생강의 혈액 순환작용과 더불어 손과 발을 통하여 몸 안의 사기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효과 및 적응증

매일 편한 시간을 골라 상기 요법을 실행할 경우 온몸에 땀이 나오고 혈액순환이 되며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수족냉증, 몸 안의 독소축적으로 인한 전신통증과 만성피로, 두통 등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령인 환자나, 병사가 심한 경우 세수 대야의 물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 안에 깊게 뿐리박힌 사기를 소금이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올바른 직업관

칠곡북삼고등학교 김기형 주무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본다.

“직업관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가치관과 비전에 대해서는 수 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한번 이상은 생각을 해 보게된다. 그러나 직업관에 대해서는 소홀한편이다. 직업의 종류는 1,000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직업은 월급 즉 대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지 능력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다.

직업이란 우리사회 혹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짜증과 지루함, 억울함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싫어하는 상사 또는 후배 그들도 전부 다 힘들 것이다.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의 지루함, 억울함에 힘을 쓰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 보며, 양보하고, 자신에 맞는 직업관 또는 직업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일이 덜 지루하고, 덜 억울하고, 덜 힘들고, 급여에 대해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직업관의 의미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직업의식이라고 한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지위지향적직업관, 기술과 노동 천시, 사무직 편향성은 고치며 소명의식, 성실성, 근면성, 전문성, 창의·협동성을 발전시켜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책임의식, 봉사의식, 장인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 나의 인생에 조금 더 넣은 인간적인 삶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본다.



다른 곳 찾기 응모방법

정답을 보내오신 조합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A4용지에 아래 사진을 오려 붙여서 다른 6곳을 표시한 후 소속기관 주소, 5자리 (신)우편번호,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2016년 10월 7일까지

▶ 보내실 곳: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우편번호 36759)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송부(Fax 054-805-3989)

※ 당첨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www.gbe.or.kr) 공지사항란에 알림



사진 속 다른 곳 찾기 당첨자 명단 (자명종 12호)

박석원, 박가빈, 이보옥, 허지웅, 이선경, 흥태기, 조남석, 문성필, 신지혜, 박숙희, 박현진, 김차순, 강은수, 이재형, 송정달, 김성호, 백순향, 윤수진, 배무석, 김윤경, 이화순, 윤기열, 최진희, 서민아



조합원 투고 안내

조합원 소식, 기행문, 시, 수필, 콘트, 만화 등 소재에 구별없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화랑이(아이디03ina) 또는 메일(03ina@gyo6.net)

문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 (054-805-3981)

일정안내

9월경	3/4노사협의회
10월경	정기상임위원회의
11월경	4/4분기노사협의회
12월경	노조간부 워크숍(전간부 결의대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 노사합동 실적보고회 임시상임위원회의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은 변경 가능함

추석 즐음에...

상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이연희 주무관

명절

때면 늘 찾는 고향이지만 해가 갈수록 가라앉는 기분을 얹누를 수가 없다. 아마 부모님이 점점 늙어 간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고향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추석 음식장만에 동분서주 하고 계신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환한 얼굴을 하고 우리들을 반겨 주신다.

벌써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를 펴지 못하시고 추석준비를 해 놓으셨다. 다식도 만들어 두 시고 식혜도 만들어 놓으시고 송편에 쓸 솔잎과 송편 속에 넣을 밤이랑 녹두로 만든 고물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음식들을 보니 옛 생각이 더 많이 난다. 이런 음식 맛은 예전에 먹던 맛과 변함이 없다. 아마 어머니의 손 맛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음식들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웬지 서글퍼진다. 아마 어머니가 안계시면 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이 추석음식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꼬부라진 어머니의 허리를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음식을 사서 먹자고 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꾸지람만 들었다. 그리고 음식 하는 것을 거들어 드리려고 부엌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당장 쫓아 내신다. 보수적인 시골의 아낙내로 살아오셔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좀 적응을 한 것 같다. 처음 시집와서는 남자들이 음식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말이다. 추석 전날은 밤늦게 까지 음식준비로 하루가 다 지나간다.

추석날 차례가 끝나는데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선영 산소로 가서 조상님께 성묘를 마치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보았다. 밭도 참 깨끗이 가꾸어 놓으셨다. 큰 밭에 콩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고 김장에 쓸 무우와 배추도 제법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콩밭에는 중간 중간에 기장도 심어놓으시고 밭둑에는 들깨와 밤밀콩도 촘촘히 심어 놓으셨다. 언제 보아도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알뜰한 당신이다. 어머니의 알뜰함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땅 한 뼘도 놀리시는 적이 없다. 밭둑까지 호박이며 팥이며 심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심으신다. 다 우리들 주려고 심는 것이라고 하신다. 이제는 그만 하시라고 해도 해마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다. 이번에도 우리들이 떠나올 때 귀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한 병씩 챙겨 주신다. 받아서 챙겨 오지만 마음은 무겁다. 어머니가 점점 할머니가 되어간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는 사람들이 고향을 적게 방문 했다는 생각이 든다. 동네 어른들이 점점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의 고향 방문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교통대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명절 교통 대란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 세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이번 추석은 즐거움과 우울함이 교차하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다.



2016 노사 합동 워크숍 2016년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교육감 표창 모습(2016년 7월 21일)